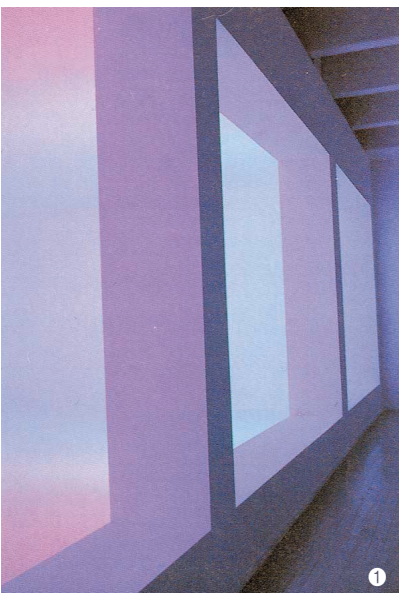


빛이 만든 촉각적이고 물리적인 공간

글 | 정현이 _ 한성대학교 회화과 교수 haema@hansung.ac.kr

인상파 화가들이 자연광선을 찬양하며 화폭을 꾸려 야외로 나왔던 것은 태양빛에 대한 화가들의 새삼스러운 애착 때문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화가들은 자신이 속한 공방에 전수되어 내려오는 방식으로 스스로 물감을 만들어 썼는데, 물감을 만드는 기법은 색을 내는 기법이었기 때문에 종종 비밀스럽게 공방의 특성으로 전수되곤 하였다. 그러나 근대과학의 발전과 산업혁명은 물감의 대량 생산 뿐만 아니라 튜브를 사용하여 물감의 휴대성을 크게 증진시켰고 화가들은 이제 화폭과 물감을 챙겨 들고 빛을 따라 화실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세기 광학의 발전은 화가들의 색채론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우리가 보는 색채는 빛이 대상에 닿아 흡수되지 않고 반사된 빛의 파장이라는 인식이 화가들의 태도를 크게 변화시켰다. 색이란 것이 물체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 물체에 닿아 반사되는 빛의 효과라는 점을 알게 되면서 화가들은 비로소 색채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하였다.

빛이 물질이 되는 공간, 작품으로 표현



① 제임스 터렐, 〈Amba〉, 1982. 시애틀 현대미술관 설치 작업

② 제임스 터렐, 〈로덴 분화구 프로젝트를 위한 터널 배치도〉, 1980, 강화폴리에스테르 필름에 연필과 잉크



미술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과학주의를 내세웠던 인상주의 미술에서 현대 추상미술이 태동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다. 대상에 닿아 반사되는 빛의 효과를 그리겠다는 다분히 사실주의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인상파 화가들은 잔디를 붉은색으로 그려 놓고 왜 잔디가 붉은 색이냐고 하면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오” 하고 쏘아붙였다. 인상주의 미술은 미술 속에서 엄정한 과학적 객관성을 추구하던 끝에 극단적 주관주의를 향한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다시 말하자면 지극히 사실주의적 태도와 극단적 주관주의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 현대 미술의 출발점이었다. 인상주의 시대 프랑스의 미술잡지들은 새삼스럽게 ‘미술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심각하게 논의하면서 미술의 목적이 객관세계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인지 주관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것인지 묻곤 하였다. 어쩌면 현대미술의 전개과정은 객관을 넘어서려는 주관주의의 투쟁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임스 터렐(1943~)은 종종 포스트모던 시대의 빛의 거장이라고 간주되는 작가이다. 애초에 미술을 전공했던 것이 아니라 수학과 심리학을 전공했던 터렐은 빛에 대한 관심 때문에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경비행기 조종사였던 터렐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녔고 그

수많은 비행 경험 속에서 터렐은 빛에 대한 매우 진지한 관찰을 하게 된다. 하나의 대기권에서 다른 대기권으로 비행할 때의 공간감의 신비한 변화라든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교차하는 지역을 통과할 때의

느낌 등 그는 우리가 땅 위에서 느끼지 못하는 빛과 공간의 느낌에 매료되었다. 그러한 느낌은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비행을 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공간감과 빛에 대한 체험을 전달하고 싶었다. 그는 새로운 빛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싶었다.

터렐은 '하늘 공간'이라는 일련의 연작들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실험하였다. 그는 미술관 안에 기하적인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특수한 조명을 설치하여서 관객들로 하여금 빛으로 가득 찬 공간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하늘을 날면, 그 공간 속의 공기와 빛의 현상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어떤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구름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도 볼 수 있지요. 이 아름다운 그림자는 실제로 공간을 놀라운 방식으로 구분지어 보여줍니다. 나는 비행기 안에서 매우 많은 것들을 보았고 그런 것들은 보는 행위의 다른 방식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곳에서는 빛이 물질이 되고, 그것이 공간을 만듭니다. 하늘의 색이 바뀌는 것은 우리의 편견과 관련되어 있지 궁극적으로 하늘의 색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의 말에서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과 다른, 빛으로 변화된 공간을 경험하게 하고 싶다는 그의 소망을 읽을 수 있다.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에서 공간이란 텅 비어 있는 곳이지만, 빛으로 가득 찬 공간은 관객으로 하여금 빛을 매우 촉각적이고 물리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로덴 분화구 프로젝트' 통해 새로운 공간 창조

초기에는 이렇게 미술관 안에 기하적인 공간을 구축하고 그곳에 인공적인 조명을 이용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작업에 관심을 가졌던 터렐은 1980년대 이래 '로덴 분화구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애리조나의 사막에 있는 사화산 분화구를 사서 별과 빛을 관찰하는 하나의 거대한 자연 환경을 조성하는, 그야말로 꿈같은 계획이다. 분화구 가장자리에 위치한 다섯 개의 공간은 긴 터널을 통해 중앙 화산구 아래의 지하공간으로 연결되고, 여기서 다시 타원형의 화산구로 연결된다. 총 7개의 이 공간들은 해와 달의 움직임이나 별의 움직임을 감각적으로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예를 들면, 한 곳에서는 해가 뜨거나 달이 지



로덴 분화구, 애리조나주 플락스타프

는 변화들을 관찰하고 하지의 일몰을 관찰하는 등 앞으로 천년을 두고 있을 모든 우주의 변화를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한다.

오늘날 작가들은 미술관 안에 안주하지 않는다. 많은 작가들이 미술관이라는 가상의 벽을 넘어 실제 공간으로, 우리의 실질적인 건축 공간으로 자신들의 작품을 이동시키고 있다. 이제 작품은 건축이 되고, 더 나아가 풍경이 되고, 또 새로운 환경이 되고자 한다.

많은 과학자들과 협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로덴 프로젝트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정교한지, 그 점에 대해서는 필자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과학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예술적인 프로젝트인 이유는 분명하다. 터렐이 구축하고 있는 시설들이 어떤 과학적 진리를 증명하거나 밝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그 바라보는 행위를 더욱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본 아름다움의 세계에 타인을 동참시키고 싶은 꿈, 그 꿈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만일 최초의 예술가가 나뭇가지에 발가락을 걸고 밤하늘의 별을 이어 하늘에 그림을 그리던 누군가라면, 터렐은 지나치게 낭만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참으로 고전적인 작가인 것이다. ㉮



글쓰이는 이화여대 철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뉴욕시립대학원에서 미술이론과 비평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삼성미술문화재단 호암갤러리 선임연구원을 지냈으며, 현재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